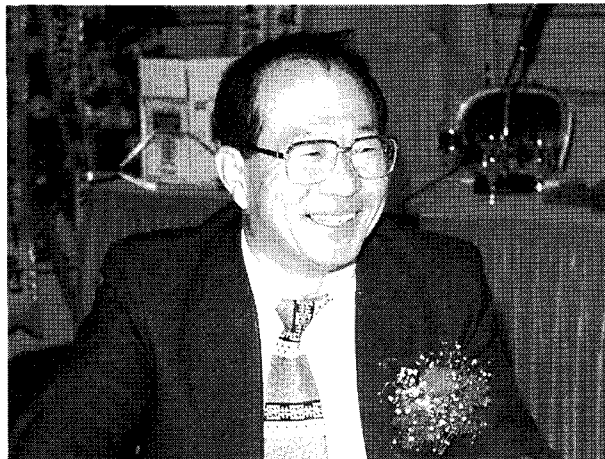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앞장 무한한 수요창출 일구는 조합으로 쇠신

류종우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류종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업무진행을 통해 96년도를 ‘골판지포장산업 신질서 재정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골판지조합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류종우 이사장은 그간에 노정되어 왔던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을 일소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류 이사장은 골판지포장업계간의 협력강화, 연관업계간 협력, 대정부 정책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골판지포장물류 합리화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조합의 위상정립과 업계 발전을 위한 변혁을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실천과제 설정 배경에 대해 그는 “작년에

골판지업계의 어려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국제적으로 펄프값이니 환경이니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골판지업계의 가격경쟁으로 품질은 떨어지고 타업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미약했습니다”라고 밝힌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명예만 지키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조합원들이 단합을 해 골판지의 권익을 지키자는 의지인 듯싶다.

골판지는 그 특성상 포장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보존과 관련하여 회수 이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특성이 있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골판지 상자 및 포장방법의 개발이 가능해 수요창

**“좀더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제지기사 및 기능사 1, 2, 3급의
기능인력 배출을 확대……
금년 가을에 선보일 보선골판지는 조합과 업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고품질화 기대”**

출도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사장 후보에 출마했다는 그는 조합운영방안으로 조합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자세 재정립으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는 재활용 산업의 지원과 중소기업계에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리(低利)의 조달청 비축물자 골판지원지 공동구매사업의 적극 활용(95년도 15억원을 96년도에는 120억 달성), 그리고 저가(低價) 출혈경쟁의 지양으로 품질경쟁 유도를 위한 기법을 개발해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 류종우 이사장은 “최근 3D업종 기피현상이 일고 있어 골판지업계에도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생산현장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더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제지기사 및 기능사 1, 2, 3급의 기능인력 배출을 확대하고 골판지, 골판지 상자, 골판지 풀제조 기능사직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판지원지의 지중이 30여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업계의 재고비용이 과다하여 경영압박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유사지종이나 변지종에 대하여 과감한 도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중·평량의 통일단순화·집약화를 추진할 것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KS품질기준

이 과열강도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상자의 압축강도에 부응하기 위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KS규격 중 과열강도와 압축강도를 동시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포장원가를 줄이고 품질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재확인시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년에 골판지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 류종우 이사장은 현재 삼보판지공업(주) 대표로 있으며 근로자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업계에 21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느낀 것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은 바로 그 생산라인을 지키고 있는 주체자, 즉 근로자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인터뷰 내내 굳은 의지를 표명한 류종우 이사장은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금년 가을에 선보일 보선골판지는 저희 조합과 업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고품질화의 촉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15% 이상 증대가 예상되는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의 수요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선도유지 포장재 제조 및 포장기술을 업계의 범용 기술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골판지포장협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수요창출과 변화된 모습으로 포장업계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변준섭 기자